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소중한 것을 버려라

학승이 물었다.
“밝은 달이 중천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직 계단 밑에 있는 사람이네.”
학승이 말했다.
“원컨대 스님께서 계단 위로 끌어 올려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달이 지고 난 다음 오나라.”

問 朗月當空時如何 師云 猶是階下漢 云請師接上階 師云 月落了來相見

낭월당공(朗月當空)은 화두가 보름달처럼 선명하게 들리는 것을 말한다. 이 경지는 수행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고급 단계이다. 그러나 이 단계도 마지막 단계는 아니다. 여기서도 한 단계 더 넘어야 한다. 그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낭월당공을 던져버릴 때 알 수 있다. 명심하라. 이 공부의 바보가 되기 위한 공부가 아니다. 소중한 것을 버려야 진정한 불지에 오른다.

조주 스님이 어느 때 대중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처음 약산에 왔을 때에 1구를 얻은 이후로 쪽 오 늘날에 이르기까지 배가 불러 아무런 허기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

師有時示衆云 老僧初到藥山時得一句子 直至如今 餓地飽

이 일은 원래 한번 배가 부르면 평생 배가 부른다.
조주 스님이 거실에서 좌선하고 있을 때 주사(主事)가 알렸다.
“대왕께서 오셨습디다.”
대왕이 예배를 하고 나와 근시(近侍)의 신하가 물었다.
“일국의 주인인 왕이 오셨는데 어찌하여 선상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이곳에서는 하급 사람이 오면 3문까지 마중 나가서 응접하고, 중급의 사람이 오면 선상에 내려서 응접하며, 상급 사람이 오면 선상에 앉은 채 응접하는 거요. 대왕을 중급이나 하급 사람처럼 취급할 수는 없어요. 대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대왕은 기뻐서 스님을 재삼 배청(拜聽)하고 공양을 들었다.

師因在室坐禪次 主事報 大王來禮拜 大王禮拜了 左右問 土王來爲什麼不起 師云 你不會老僧者裡 下等人來 出三門接 中等人來 下禪床接 上等人來 禪床上接 不可喚大王 王作中等下等人也 恐屈大王 大王歡喜 再三請入內供養

최소한 총림의 방장이라면 임금을 삼급 대접을 해야지 하급 대접을 해서는 안 된다. 조주 선사는 임금을 삼급 대접했다. 그런데 스스로 삼급인줄 아는 임금이 요즘에 있을까?

조주 스님이 주원외(周員外)에게 물었다.
“자네 아직도 임제(臨濟)의 꿈을 꾸는가?”
원외가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을 보고 스님은 또 물었다.
“어느 쪽에서 보는가?”
원외가 말했다. “이쪽에서 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디에서 임제를 보는가?”
원외의 대답이 없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주원외는 어디에서 왔는가?”
원외가 말했다. “은 것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까마귀도 아니면서 날아왔다 날아갔다 하는군.”

師因問周員外 你還夢見臨濟也無 員外豎起拳 師云 那邊見 外云 這邊見 師云 什麼處見臨濟 員外無對 師問周員外 什麼處來 云非來非去 師云 不是老鴉飛來飛去

임제가 준 화두를 든다면 그것이 임제의 꿈이다. 어느 쪽에서 보는가 물었을 때 3번을 때려야 하고, 어디에서 보는가 물었을 때는 문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하여 반박할 자가 있는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옳은 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말하면 본전도 찾지 못한다. “주원외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고 물었을 때 자신의 공부를 다 내놔야 한다. 만일 나에게 묻는다면 “백두상설(白頭常雪)”이라고 대답하겠다. 천하의 남자들이여! 나의 이 대답이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알겠는가?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44



이익과 존경과 명성과 공덕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이티붓타카(如是語經)》

어느 해 겨울 우리 가족들은 김용(金庸, 1924-)의 소설을 읽느라 밤잠을 잊었던 적이 있다. 그의 소설을 한마디로 무협소설이라 하지만, 무협소설의 역사에서 신기원을 이루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리라 본다. 그의 소설을 한 권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소설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많은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졌다. 소설을 먼저 읽은 사람에게,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은 대개 재미가 없게 마련이다. 책을 읽을 때 상상했던 그 광활한 세계를 영화가 다 담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용의 작품 중 《천룡팔부》역시 그런 예에 속하리라 본다. 영화로 만든 《천룡팔부》는 그다지 잘 만든 것 같지도 않고, 재미도 없다. 그러나 단 한 장면으로 인하여, 나는 오래도록 이 영화를 기억하고 있다.

무협소설이나 무협영화는 ‘장르의 관습’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틀에 박힌 상황이 나오는, 뻔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약한이 있고, 약한 무도(無道)함을 견디다 못한 정파(正派)의 사람들이 뭉쳐서 그 약한을 다시 무찌른다는 이야기. 우리 고대소설의 주체인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불교도의 입장에서, 그래도 늘 자랑스러운 것은 소림사(少林寺)의 존재감이다. 소림사는 늘 정파의 마지막 의지가 된다. 민중들에게 불교가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고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그런데 《천룡팔부》에서는 이 소림사마저 힘을 못 쓴다. 새롭게 등장한 악의 세력 앞에,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신세가 따로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적들이 쳐들어오기 무섭게 담 넘고 산 넘어 삼십육계 출행량을 치는 스님들의 뒷모습이다. 부처님은 누가 지키고, 도량은 누가 지킬 것인가.

소림사의 최고 고승, 방장스님은 절을 지키고 있다. 도량을 여기저기 살펴본다. 누가 아직 도망 안 가고 지키고 있나 싶어서이다.

장경각에 이르니, 한 행자가 책정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행자다.

“왜 너는 도망을 가지 않느냐? 스님들도 다 도망을 갔는데...”
“장경각에서 책정리 하는 것이 제 소임이어서요. 아직 정리할 책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난 판에, 절이 불타는 와중에 책정리라니... 한가로운 소리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성실성이 있다.

“밖에 나가봐라. 적들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와”라는 방장 스님의 말에 돌아온 행자의 대답은 “새가망습디다. 헤아릴 수도 없습디다”였다.

여기에 방장 스님은 “그렇지 않다. 언제나 적은 단 둘밖에 없다. 하나는 명이고, 다른 하나는 이익이다” 라고 말한 뒤 갑자기 행자를 돌려 앉히고서는 등에 장풍으로 그림 하나를 그려준다. 무술도보(武術圖譜)이다. 그리고서는 도망가라 말씀하신다. 무사히 도망한 이 행자가 십여 년이 흐른 뒤, 다시 소림사를



그림·박구원

되찾고 정의를 가져왔음은 물론이다. 명리(名利),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우리의 가장 큰 적이다. 범행(梵行), 즉 청정한 행을 실천하는 것조차 남에게 존경을 받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한 불도수행이라 말할 수 없다. “또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리이러한 사람이라고 알려야겠다’는 의도에서 범행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다.”(이미평 율길, 《기쁨의 언어, 진리의 언어》, 민족사, pp.202)

보조지불(普照知訥, 1158-1210)스님께서 정혜결사를 일으킨 것도 바로 명리에 빠져있는 교단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명리를 떠나자, 그것이야말로 결사정신이고 출가정신이다. ‘결사’나 ‘출가’가 나의 연구주제가 되어 있는 까닭이다. ‘명리 떠나기’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38)

중생의 번뇌가 많으므로 번뇌 이름도 다양

번뇌-③ 번뇌의 다른 명칭들

불교에서 인간의 삶이란 괴로움(苦)의 세계이다. 그 괴로움의 근원에는 번뇌가 있다. 그러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근원인 번뇌에 대해 명확히 자각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대해 알아 채지조차 못하고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괴로움의 해탈’이라고 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번뇌(煩惱)는 ‘극심한 고통’ ‘분노’ ‘무지’ ‘탐욕’ ‘집착’ 등을 의미하는 범어 ‘클레샤(kleśa)’의 한역이다. 인간의 모든 행위가 번뇌의 근원인 것이다. 예컨대 살인, 도둑질, 사음의 세 가지 몸의 번뇌, 거짓말, 비방, 욕설, 궤변의 네 가지 말의 번뇌, 탐욕, 분노(원한), 회의(의심)의 세 가지 마음의 번뇌 등이 모두 클레샤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번뇌와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수면(隨眠)이다. 수면은 번뇌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하지만 굳이 수면이라고 한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 수면은 범어 ‘아누사(ānuśaya)’를 뜻풀이 한 것으로 본래는 나쁜 방향으로 향해가는 ‘경향’, ‘성향’의 의미이다. 이를테면 인간의 심신을 움아매어 자유를 빼앗고 그로 인해 괴로움에 끌려 다니는 인간이 점점 고통에 빠져 혼미해 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즉 번뇌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말한다. 또한 번뇌의 종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번뇌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채 인간인식의 가장 깊은 곳에 해당하는 제8알라야식에 잠자듯이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잠재돼 있을 뿐 조건에 따라 표면의식에 일어나기 때문에 번뇌의 종자라는 의미로 수면이라고 한다.

번뇌와 수면과 같은 대표적인 번뇌이외에도 수많은 번뇌의 별칭들이 있다. 우선 번뇌의 움아매는 성질을 강조한 전(纏)이 있다. 전은 범어의 ‘파리야바스파나(paryavasthāna)’의 의역으로 분노나 욕망에 의해 소유된 상태를 말한다. 즉 분노와 탐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 번뇌가 인간의 몸과 마음의 자유를 빼앗은 상태다. 다음으로 인간의 선한 마음을 덮고 방해한다는 의미의 번뇌가 개(蓋)이다. 개는 범어의 ‘니바라나(nivarāṇa)’의 의역으로 ‘방해하는 것’ ‘간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마음을 덮어 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한다. 또한 번뇌의 속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결사(結使)이다. 결사는 범어 ‘삼요자나(samyojana)’의 의역으로 함께 묶는 것을 뜻한다. 번뇌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움아매고 고뇌의 세계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한문의 사(使)는 번뇌가 인간을 고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

도록 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해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움아매어 자유를 빼앗는다는 점에서는 계(繫)도 박(縛)도 동일한 번뇌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전, 개, 결사, 계, 박 은 번뇌가 인간의 삶의 모든 면에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스스로 속박되어 가는 것을 강조한 번뇌로는 취(取)와 액(擲)이 있다. 취는 탐욕으로 인해 대상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다. 액은 소를 수레에 매는 멍에를 말하는 것으로 소가 멍에로 인해 수레를 끄는 괴로움에 처해 있듯이 인간이 여러 가지 고뇌에 얽매어 도록 하는 것을 비유로서 표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번뇌는 본래 환상과 같아서 그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번뇌는 뒤아낼 수 있는 더러움과 같으므로 구(垢)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더러움이 외부로부터 덧붙여진 경우의 번뇌를 객진(客塵)이라고 한다. 번뇌는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붙어 들어온 먼지와 같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번뇌는 바르고 선한 것을 휩쓸어 없애 버리므로 사냥개 흐르는 폭포에 비유되어 폭류(暴流)라고도 한다. 번뇌를 일컫는 말이 이토록 다양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들의 번뇌가 그만큼 많기 때문일 것이다.
日 興곡대 불교학석사·前 본지기자

불교전문강원 학인 모집

각 종단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불교강원을 개설합니다.

경전과목	◆ 사집반 ◆ 초발심자경문 (원호스님 발심장 부문) ◆ 치문, 도서, 선요 ※ 특강 : 선문 활요, 금강경
대 상	각종 종교단체 스님 또는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분으로 성별에 제한없이 누구나 수강 가능
강 사	도열스님 (통도사 강원, 월정사 강원, 마곡사 강원, 강주 역임, 범어사 중강 역임)
불교의식	예불, 대령관육, 관음시식, 다비식 등
강의시간	매주 화, 목, 일예 강의

※ 스님이 되셨으나 한문으로 된 불경경전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스님들을 위하여 중단을 초월한 교육원으로써 수요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 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금정산 금륜사 불교전문 강원

문의 055)383-5830, 055)383-7009 / 011-556-5830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1036-1번지

극락사 템플스테이 안내

1. 초급 중급 고급 기도 법 배우기
2. 자비명상, 마음치유명상, 행복명상, 성격개조 명상, 임종명상, 걷기명상
3. 위파사나 : 사념처 관법, 오정심 관법
4. 간화선 = 선정삼매와 간화선 수행
5. 단전호흡, 도인체조, 향공, 오금희, 육단공 ..대안기공, 태극권 등...
6. 단기 출가(2박 3일 ~ 6박 7일까지)

수월스님의 BTN 불교 TV 강좌 안내

1. 월요일 17:00 2. 금요일 08:00 3. 일요일 23:00

02)434-1717
서울 중랑구 망우 본동 73-10번지 극락사

설법·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대상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기간	■ 종합반 : 00명 ■ 소수정에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대상인원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8시 소수정에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강사소개	[설법연수원 회장 우물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가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면시술사 40년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인 우물 김철회 박사 특별지도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사)한국산업가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국 설법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